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전업주부의 인력개발 및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김 정 옥* (대구가톨릭대학교)

손 정 영 (대구가톨릭대학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직업세계에서 지식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10년까지 서비스업과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에 변화가 일어나서 약 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를 채울 고급인력이 우선 양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과 직업은 질적으로도 기존의 업무특성과는 다른 예컨대 섬세함, 감성 등 여성적 특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인력의 가능성과 잠재력 형성,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인 재산이며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국정과제로서의 지역발전을 위해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중 전업주부의 인력개발과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을 중시으로 형성과 활용의 측면에서 현황을 검토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여성인력 개발 및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

가. 연구내용

- (1) 여성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국제간, 지역간의 비교를 통한 검토
- (2) 전업주부의 인력개발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3) 가족친화적고용 정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나. 연구방법

- (1)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 (2) 관련기관 홈페이지 분석
- (3) 관련기관 담당자에게 공문발송 및 인터뷰

3. 여성인적자원 활용 현황

여성인적자원 활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종 통계자료(국제간 통계, 전국 통계, 지역통계)에 나타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현황을 분석하였다.

가.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국가중에서 독일과 함께 48.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령 단계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국제간의 비교로 볼때 20-24세에는 61.5%, 25-29세에 57.7%, 30-34세에는 48.8%로 낮아지는 경력 단절 현상 이 다른 국가(캐나다: 80.5%, 스웨덴: 78.8%, 미국: 76.1%등)와 비교해 볼 때 심각하다.

전국통계로 볼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4세에서 61.5%, 40-44세 에 64.0%로 정점에 이르다가 30세가량에 저점에 도달되는 'M'을 뚜렷이 나타내었다.

대구·경북지역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M'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출산, 육아 등의 생애주기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여성취업자의 증사상 지위 분포

- (1) 한국은 타국가(OECD국가)에 비하여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18.4%로 가장 높았다.
- (2) 여성취업자중 상용이 23.3%, 임시직이 31.0%, 일용이 11.4%로서 남성의 취업자 상용직 39.6%, 임시 16.7%, 일용 8.4%와 비교해 볼때 여성이 임시 직, 일용직 비율이 훨씬 높았다.

4. 여성인적자원 형성의 현황

가. 전업주부의 취업을 위한 교육 현황

전업주부들의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93년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을 서울, 부산, 광주 3개지역에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년도에 명칭이 개칭되었다. 전국에 56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대구지역에는 대구달서 여성인력개발센터,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경북지역에는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공되는 훈련 과목은 거의 6개월 미만의 기초적인 수준에 그치고 취업상담과 취업알선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career-up차원의 전문직종 교육 정책이 부재하다.

나. 가족친화적 고용 정책 현황

가족친화적 정책과제로 먼저 육아휴직제의 정착의 정책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금액확대가 있다. 또한 가족간호 휴직제 활성화, 직장 보육시설 설치확대, 탄력적인 근무형태의 개발과 재택근로자의 확산, 학교급식의 확대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5.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가. 전업주부의 인력개발 활성화방안

- (1) 전업주부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가정경영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 주부집단별 요구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개발
 - 저소득, 저학력 여성의 학습기회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 중앙정부, 지자체, 여성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복기능 조정 및 정보, 자원의 공유
- (2) 취업희망 주부인력의 개발과 활용 및 창업 지원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 강화
- 저소득층 주부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책
- 주부창업이 용이한 분야의 창업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나.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활성화 방안

- (1) 보육서비스의 정비와 강화
- (2) 육아휴직제도의 정비와 강화
- (3) 가족간호휴직제의 도입
- (4) 기업의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을 위한 홍보
- (5) 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6) 상담 서비스 제공 : 직장-가정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 등